

# 파독 간호사 60년, 한 이름에 담긴 삶의 기록



박경란 작가 첫 장편소설 '안녕, 흥이' 출간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을 다룬 장편소설이 나왔다.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살아온 여성들의 기억을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가족과 시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담아낸 박경란 작가의 첫 장편소설 '안녕, 흥이' (하늘퍼블리싱판)다.

이 작품은 독일에서 생을 마감한 파독 간호사 이모의 장례식에서 시작한다. 화자인 차혜경은 장례를 계기로 이모가 남긴 흔적과 주변 인물들을 만나며, 가까이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 개인의 죽음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점차 세대의 기억으로 확장되며, 가족 안에 축적된 시간과 감정의 층위를 드러낸다. 이야기 속 '장례'라는 사건은 오랫동안 미뤄져 있던 기억과 서사를 다시 불러내는 계기가 된다. 소설은 가족과 여성의 몸을 통과한 기억에 주목한다. 엄마와 이모, 딸의 시선이 교차하며 가족 안에 축적된 기억과 감정의 흐름을 드러낸다. 작가는 장례식의 풍경, 오래된 일기장, 흩어진 대화의 조각을 따라가며 서사를 풀어간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시간과 상황을 차분히 축적해 나가는 방식이 특징이다. 특히 이 책은 '파독 간호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삶의 결을 짚는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가족과의 단절, 노동과 돌봄의 부담, 노년과 죽음에 이르는 과

## 한국·독일 넘나든 여성의 삶과 기억의 서사

정까지, 이주 여성 노동자가 감당해야 했던 일상의 무게를 담아냈다. 기존의 '헌신'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개별 여성의 경험과 감정'에 초점을 맞춘 점이 눈에 띈다. 이야기는 이모가 남긴 일기장을 통해 더 이전 세대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독 간호사 1세대의 삶에서 출발한 서사는 전쟁과 분단, 이주와 노동을 거쳐 가족 안에서 전승된 기억의 흐름으로 확장된다. 화자는 이 과정을 따라가며 한국 현대사의 상처가 사건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몸과 삶에 새겨진 기억으로 이어져 왔음을 깨닫는다. 나아가 자신 또한 그 기억 위에 서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작가는 2007년 독일로 이주한 이후, 이민자의 삶과 기억을 주제로 에세이와 인터뷰 기록집, 희곡 등을 집필해왔다. '안녕, 흥이'는 이러한 작업의 흐름이 응축된 첫 장편소설로, 출판과 공연을 통해 축적해온 서사를 소설 형식으로 확장한 결과물이다.



idlickart

작품에서 '안녕'은 단순한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오래 불리지 못했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언어로 제시된다. 박경란 작가는 "이러한 서사를 통해 가족과 기억의 관계를 짚으며, 여성의 삶을 따라 한국 현대사를 다시 바라보고자 했다"며 "나는 소설 속 모든 인물이었다. 여성의 몸을 통과한 시대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과 희망으로 풀어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새로운 책



▲미래기억 연습=김영삼 저자  
김영삼 문학비평가 첫 비평집을 펴냈다. 다음 세기에 도래할 절망을 미리 목도한 니체, 과거를 역사의 연속체 속에서 포착해 현재를 구원하고자 한 벤야민, 차별과 혐오를 무기 삼아 구축하는 죽음-정치의 지옥도를 바라보며 '누구와 무엇과 우리는 동시대인인가'를 물었던 아감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2020년대 한국문학 작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탐구한다. /문학들·3만5천원



▲모양 없는 육체=김곡 저자  
전작 '관종의 시대', '과잉존재'에서 현대사회의 나르시시즘을 해부했던 김곡이 이번에는 '몸'이라는 영역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한다. 영화감독이기도 한 저자가 그려내는 현대사회는 육체들로 가득한 무대지만, 음양이 있다. 한편에선 다이어트와 포토샵이 유행하며 모두가 아름다운 몸의 소유자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선 각종 중독증과 함께 데이트 폭력, 리모컨 놀이,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병리현상들이 발현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가 자기 몸을 사랑하자고 외치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진정한 몸이란 누구인지 망각해가는 시대, '육체'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교유서가·1만5천800원



▲약속의 시대=백은유 저자  
'약속의 시대'는 일곱 편에 걸친 소설을 통해 희망 없는 세대가 어떻게든 '내팽개친 슬픔을 회수'해 자기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발걸음으로 가득한 책이다. 치열하게 쓰고 다듬은 중단편소설에서는 절묘한 구성에서 비롯되는 긴장감, 인간의 모순을 파고드는 반전의 아이러니, 작가 특유의 현실적이고도 날카로운 대사 등이 돋보인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함으로써 상처를 회복시키는 인물의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플롯, 섬세한 일상 묘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사회적 참사의 고통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게 한다. /문학동네·1만8천원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나야=손원우 글, 김서희 그림  
저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갖춘 심리학 전공자로 배운 것을 교실로 가져와 아이들과 함께 실험하고, 다듬고, 또 적용했다. 그 결과가 학교폭력 0건, 민원 1건이라는 숫자로 남았다. 특별한 훈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끈 수업이었을 뿐이다. 이 책은 아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고, 여러 차례 고쳐 쓴 교실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다. 본문에 실린 그림도 실제 수업을 들었던 6학년 제자가 그렸다. 아이들의 목소리와 정성이 함께 담긴, 교실에서 검증된 마음 수업의 기록이다. /페이지2북스·1만8천800원

# 자동차부터 도시 개발까지...기업의 선택으로 읽는 산업과 도시

## 정몽규 HDC그룹 회장 '결정의 순간들' 출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자신의 경영 경험과 한국 산업화의 흐름을 함께 담은 책 '결정의 순간들'( 쌤앤파커스판)을 펴냈다. 이 책은 자동차와 건설, 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과 도시의 성장 과정을 되짚는 기록이다. 개인의 경영 경험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의 변화와 도시 생활의 확장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담았다. 정 회장은 1988년 현대자동차에서 경영 수업을 시작해 HDC

그룹에 이르기까지 제조업과 도시 개발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책은 HDC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업의 선택이 산업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작동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와 소비, 이동 방식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함께 살핀다. 서사는 해방 이후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에서 출발한다. 창업자들의 도전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고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짚는다. 자동차가 제조 상품을 넘어 이동 방식과 산업의 속도를 바꾸는 동력으로 작동했던 시기를 돌아보며 산업화 초기의 분위기를 함께 전한다. 이후 이야기는 도시 개발의 역사로 이어진다. 주거와 소비, 이동이 결합된 도시 인프라가 형성되는 장면들을 따라가며

한국 도시의 변화 과정을 함께 조명한다. 자동차와 아파트 산업의 성장 과정, 그리고 HDC그룹 50년의 기업사가 맞물리며 산업과 도시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구조다. 책은 일반적인 경영서처럼 '성공의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선택 이후 기업이 책임을 감당해 온 시간을 기록하는 데 무게를 둔다.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계약을 이행했던 현장, 사고 이후 기업의 이름으로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과정,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을 반복해 오가야 했던 시간 등이 주요 장면으로 등장한다. 정몽규 회장은 책에서 "사업은 완벽이 아니라 최적을 찾는 과정이다. 기업은 숫자로 성장하지만 신뢰로 존속한다"며 "결정은 누구나 내릴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